

2011 빛고을 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 - 오윤희 前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 “불경은 쓸 데 없으니, 일본에게 다 쥐버려라”

‘2011 빛고을 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로 오윤희 前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이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이라는 책을 통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오윤희 소장은 ‘만국무쌍(萬國無雙)의 선본(善本)’인 고려대장경이, 조성 천 년을 맞아 세상 밖으로 나온 의미와 대장경의 가치, 앞으로 대장경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정리=양행선 전남지사장

### 팔만대장경은 재조대장경

저는 오늘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생각과 의도에 대한 기억들을 재현하기 위한 새로운 결집의 소산입니다. 아난과 가섭의 시대에는 삼장으로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면서 기억들도 확장됩니다.

확장된 기억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그릇, 삼장보다 훨씬 큰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대장경이란 용어는 그런 요구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확장될 수밖에 없는 기억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대장(大藏)입니다.

고려대장경은 한문대장경입니다. 목판 인쇄술로 조성된 목판대장경입니다. 전면적인 교정을 거쳐 완성한 교정 대장경입니다.

현재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은 교정증보를 거친 고려재조대장경입니다. 고려 초조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한 연도는 1011년(현종 2년)입니다. 이 대장경을 천년의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을 우리는 몽고 침략 때 불타 버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장경을 새긴 것이 재조대장경인 것입니다.

초조(初雕)라는 말은 ‘처음으로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목판에 도장을 새기듯 글자를 새기고, 도장을 찍듯 찍어서 책을 만드는 이른바 목판인쇄술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에 새기기 시작했던 목판대장경으로 송나라 개보 대장경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새겨진



대장경입니다. 이 대장경을 처음 새긴 대장경이라 한 까닭은 두 번째로 새긴 재조대장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인사에 보존돼 있는 팔만대장경이 그것입니다.

고려 초조대장경을 비장(秘藏)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초조대장경이 일본 교토에 있는 남선사라는 사찰 수장고 안에 감춰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 정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선사의 비장에서 초조대장경의 일부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산실돼 전하던 초조대장경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초조대장경은 1965년 한국학자 천혜봉에 의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때까지 초조대장경은 공식적으로 ‘몽고군의 침략 때 소실된 대장경’이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초조대장경 인쇄본의 일부가 일본에 보존돼 왔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었습니

다만 남선사의 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었다 해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초조대장경의 예처럼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이론도 학문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초조본만 해도 300권에 달합니다.

### 고려대장경은 아름다움의 극치

《사국백련사인정화상행업기》에는 “당·송·원 세 나라의 대장경들은 오래 전에 한국에 들어와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채 여러 지역의 고찰에 남아있다. 이 경본들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세 나라의 20여 종의 대장경 외에 조선교정각판장본(校正刻板藏本)이 있다. 이는 지역 여러 사찰에 남아 있어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일뿐더러 완전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한국에 견줄 데가 없는 완전한 경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구절은 일본의 인정(1645~1711)이라는 학승이 남긴 말입니다. 정토종의 승려였던 인정은 《심지관경(心地觀經)》을 읽으면서 당시 일본에 유통하던 ‘황벽장(黃蘗

藏)’에서 다수의 오류들을 발견하고 교정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후 대장경의 대교(對校)를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4년에 걸쳐 고려대장경과 명복장에 대한 대교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조선교정각판장본이 바로 고려대장경이자 재조대장경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입니다. 당·송·원 등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조성됐던 어느 대장경도 고려대장경에 필적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정 스님 이전부터 일본에는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 스님에 의해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은 전설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려대장경에 대한 인정 스님의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 스님이 고려대장경을 다른 판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한 교정본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 日 인정 스님, 고려 대장경 극찬
- 조선 억불승유 정책으로 대거 망실
- 쓰레기처럼 대장경 인쇄본 처리
- 천 년 만에 디지털화로 다시 태어나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평가 있었기에 일본에서는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삼아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만국무쌍(萬國無雙)의 선본(善本)’이라는 말은 불교 문헌의 표준화를 뜻합니다. 당시 고려대장경은 국제 표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고려대장경에 대해 분명한 가치를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려대장경이라는 명칭을 비롯해, 팔만대장경 초조·재조·속장경 등의 명칭이 있지만 모두 가치평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 스님은 능소 양면에 걸친 고려대장경의 특성을 미와 선이라는 가치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교정각판장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두드러진 의의입니다.

### 억불승유로 대장경 남아있지 않아

고려대장경은 목판본이기 때문에 인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찍어 낸 것입니다. 하지만 송유역들의 조선시대에 들어 그 인쇄본들은 현재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대장경은 이단의 책이므로, 비록 태워버려도 하더라도 가다. 더욱이 인접한 나라에서 구하니, 마땅히 아끼지 말고 쥐야 할 일이다.” “불경을 일본에 주는 것으로 말하면 국가에 쓸데없는 물건이라 해 다른 나라에 버리니, 이는 우리나라가 불교를 받들지 않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웃 나라가 구하는 것을 부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찾아서 주니 교린하는 의리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경은 인정 스님이 찬탄해 마지않았던 고려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을 원하는 일본사절에게 대장경을 주는 일은 쓸모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경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불교관련 문헌들을 일본이든 어디든 쓰레기를 처분하듯,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장경이란 키워드로 조성왕조실록을 검색하면 150여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대부분 조선 초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사들은 초기 몇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장경을 구하러 온 일본 사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성종 때에 가장 성행하다 명종 이후로 단한 건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진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상 줄 대장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종 이후에는 대장경은 물론 변변한 불교 관련 서적은 거의 씨가 말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려대장경 목판이 남아있지만 이후에 인쇄된 기록도 없습니다.

일본 사절들은 조선에서 얻어 간 대장경을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에 모셨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만국무쌍’이라는 찬탄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 새로운 그릇을 위해

목판은 타버렸지만 인쇄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생각할수록 기이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 두 권의 분량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모를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 남아있다는 300권의 존재도 기이할 뿐입니다.

디지털화 사업이 끝난 것이 천 년을 딱

한 해 남긴 때였습니다. 천 년 동안 숨어 있던 대장경이 천 년이라는 생일을 맞아 세상 밖으로 제 발로 나온 것입니다. 비록 실존을 볼 수 없을 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초조대장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디지털로 화려한 술한 초조대장경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 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러 2500년 전의 불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릇의 시대, 그릇이 깨지고 뒤집히는 시대, 그릇을 받 먹듯 깨트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장경의 꿈은 이제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그릇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옮겨 담은 일은 깨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깨내기 위해서 깨트려야 하기도 하지만, 담기 위해서도 깨트려야 합니다. 깨내고 담은 일은 그릇의 모양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승산당 행원대종사 사리탑비 건립 발원

한국불교 세계화의 초석을 놓으며 지구촌의 정신적 스승이셨던  
故 승산당 행원대종사님의 업적을 기리는 사리탑비 건립을 발원 합니다.

세계는 한 송이 꽃 ‘世界一花’ 임을 제창하셨던 만공 큰스님의 선지를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 1966년 재일홍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전 세계 30여 나라에 120여개의 홍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백만의 납자와 제자들을 제집,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한 생을 바치셨던 대종사의 큰 뜻을 기리고자 열반8주기에 즈음하여 사리탑비 건립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표석으로 삼음은 물론 대종사의 행장이 후손만대 전승, 귀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포교에 진력하시는 문도스님을 비롯하여 해외 포교 역사를 개척하시는 선각자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승산당 행원 대종사 사리탑비 건립추진위원회  
건립부지 : 화계사 부도전 021992-1073



세계는 한송이 꽃 世界一花



설계\_승산당 행원대종사 문도회 · 비문\_승산당 행원대종사 문도회 · 시공\_금호석재